

“의사 꿈나무들 위해 다양한 의료 현장체험”

국내에 체험 프로그램 적어 첫 기획
2010년부터 시작...12기 수료생 배출
수술 컨퍼런스부터 수술실 견학까지
정형외과 신경외과 의료진과 체험



▲목동힘찬병원 정경

‘시대가 변했다’, ‘예전 같은 인기는 아니다’. 말은 많아도 여전히 의사는 많은 청소년이 선망하는 미래의 직업이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대학에서 관련 전공을 공부하기 전까지는 청소년들이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는 의료현장 체험이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 의료인 양성을 위해 청소년에게 다양한 의료 현장 체험을 제공하는 병원의 지역사회 재능기부 프로그램이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12기 수료생을 배출한 힘찬병원의 ‘청소년 여름 인턴십’이다.

●12년째 수료생 배출, 상당수 의대 진학
힘찬병원의 ‘청소년 여름 인턴십’ 프로그램은 2010년 처음 시작했다. 의료 관련 직업을 희망하는 중고생들이 의사를 비롯해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등 다양한 업무를 현장서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해 진로 결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강진우 부평힘찬병원 원장(왼쪽)이 인턴십 학생들에게 로봇 인공관절수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7월 29일 화상회의시스템으로 진행된 인턴십 수료식 목동분원 행사에 참석한 이수찬 힘찬병원 대표원장(아래 사진 왼쪽 두 번째).

힘찬병원 관계자는 “의사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이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국내에 별로 없어 방향 때 그런 교육이 활성화된 해외로 연수를 떠난다는 현실을 접하고 2010년 처음 기획을 했다”고 프로그램 탄생 배경을 설명했다.

인턴십 프로그램에 대한 힘찬병원의 관심은 각별하다. 올해까지 12년째 프로그램을 중단없이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전까지는 서울 강북점, 서울 목동점, 부평점, 인천점, 부산점, 창

원점 등 6개 분원별로 지역학생을 5~6명씩 선발해 3, 4일의 일정으로 운영해 왔다.

지난해와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프로그램이 중단될 고비를 맞기도 했다. 하지만 꼼꼼한 방역대책을 기반으로 연수일정을 2일로 줄이고 교육인원도 2, 3명으로 축소해 진행했다. 소수인원으로 일정을 단축해 운영하면서도 교육 프로그램은 기존과 동일하게 체험이 가능하도록 배려했다.

이처럼 매년 수료생을 배출하고 이들

중 상당수가 의대에 진학하다 보니 지역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프로그램의 인기가 높다.

인턴십 선발은 학생이 직접 작성한 참가신청서와 교사추천서 등을 받아 진행한다. 분원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은 4.8대 1이며 평균 3~4대 1정도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수료자 중 의대진학자 초청 계획

올해는 7월 28, 29일 이틀간 실시해 17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학생들은 이틀 동안 정형외과, 신경외과 의료진과 함께 수술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외래진료, 병동회진, 수술실 견학 등을 체험했다. 마취과, 내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등의 전문의와 함께 수술마취, 내시경검사, 엑스레이검사, 심전도검사, 폐기능검사 등 검사 전반에 대한 교육도 받았다. 또한 성장판검사, 초음파검사, 물리치료 등을 직접 받아보는 등 실제 의료 현장을 경험했다.

강북힘찬병원에서 인턴십 교육을 진행한 신동협 원장은 “미래의 의사를 꿈꾸는 학생들이 의사의 직업적 삶을 생생하게 느끼도록 질의응답 때 진솔한 답변을 하려고 했고, 의학용어가 낯선 학생들을 위해 되도록 쉽고 친절하게 설명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7월 29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6개 분원에서 화상시스템으로 수료식이 열렸고, 이 자리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의사 가운과 수료증을 받았다.

힘찬병원은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기존 수준의 교육인원과 일정으로 복귀해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다시 통합수료식이 가능해지면 프로그램 수료자 중 의대 진학자를 초청하는 특별강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힘찬장학회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도 매년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건강

스포츠동아 2021년 8월 5일 목요일 15

글로벌 1위 센트룸, 프로바이오틱스 진출

‘신바이오틱스 100’, 프로·프리바이오틱스 동시접취



글로벌 멀티비타민 판매 1위 브랜드 센트룸이 ‘센트룸 포커스 신바이오틱스100’(사진)을 선보이며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센트룸의 첫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으로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럼,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 락토바실러스 랍노서스 등 7종 핵심 균주로 구성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장 안에서 증식하도록 먹이가 되어주는 프리바이오틱스(부원료)를 한번에 섭취할 수 있는 신바이오틱 포뮬러로 설계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권장하는 1일 프로바이오틱스 최대 함량인 100억 CFU(제품 1g당 유산균을 측정하는 단위)를 보장한다.

자사몰 및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자사몰에서는 출시 기념으로 9일부터 22일까지 론칭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국내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은 지난해 8856억원을 기록했다. 2018년 5424억 원에서 63%나 성장해 1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홍삼의 뒤를 이어 두 번째로 큰 제품군으로 떠올랐다.

고려대, 제12대 보건대학원장에 윤석준 교수 연임



고려대는 12대 보건대학원장으로 윤석준(사진)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를 임명했다. 윤석준 원장은 보건정책 분야의 전문가로 대한민국 보건의료 주요 현장에서 활동해 왔다. 의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를 맡았고, 최근까지 보건대학원장을 수행하면서 탁월한 리더십과 업무능력을 인정받았다. 현재 고려대 보건대학원장,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장, 의학한림원 정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루닛 AI, 인제대 백중앙의료원 산하 병원 도입

루닛의 인공지능 솔루션이 인제대 백중앙의료원 산하 전국 5개 백병원(서울, 부산, 상계, 일산, 해운대백병원)에서 사용된다. 백병원은 루닛의 폐 질환 진단 AI 소프트웨어인 ‘루닛 인사이트 CXR’과 유방암 진단 AI 소프트웨어 ‘루닛 인사이트 MMG’를 도입했다. 루닛 측은 이번 계약이 전국에 산하 병원을 보유한 의료재단이 AI 솔루션을 구매하는 첫 사례라고 밝혔다. 인제대 백병원은 전국 5개 백병원에서 매년 60만 장 이상의 엑스레이 영상을 분석하는 의료기관이다.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중앙대병원 “전자담배와 일반담배 같이 피면 몸에 가장 해로워”

전자담배 사용 83%, 일반담배도 폐
체내 염증·산화스트레스 지수 높아

전자담배와 일반담배를 함께 사용하는 복합흡연을 할 경우 체내 염증 및 산화스트레스 지수가 높다는 국내 연구결과가 나왔다.



발표했다. 조수현 교수팀은 국민건강영

양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5191명의 한국 성인들을 흡연 패턴에 따라 구분하고 이들의 니코틴 지표와 산화 스트레스 지표를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일반담배와 전자담배를 함께 사용하는 복합흡연자가 일반담배 또는 전자담배 흡연자보다 체내 염증 및 산화 스트레스 지수가 더 나쁜 것으로 확인됐다.

조수현 교수는 “전자담배 사용자의 83%가 일반담배를 같이 사용하는 복합흡연자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연구에서 니코틴, 염증, 산화스트레스 지표가 가장 높은 복합흡연이 일반담배 또는 전자담배 단독 흡연보다 더욱 유해한 것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에 복합흡연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수현 교수팀의 이번 연구 논문은 대한가정의학회지 최신회에 게재됐다.

김재범 기자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8월 5일(목) 음력: 6월 27일 문의 : (02) 812-1201, 도원학당

 쥐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소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호랑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토끼 행운색: 검정 길방: 북	 용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지금까지 쌓아올린 공이 인정을 받으며 문서적인 측면의 일에 발전의 계기가 조성되어 인사이드, 확장, 변경 등에 좋은 결실을 맺게 된다. 자력증의 취득에 있어서도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는다. 마음을 비우고 조용히 관망하라.	오늘의 형상은 저녁놀이나 산천 초목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이다. 세상은 바빠 돌아가는데 나만 홀로 무인도에 떨어져 있는 것 같다. 물질이나 금전적으로 충분치 못하는데도 호화롭고 사치스런 생활을 바라는 욕망이 강할 때이다. 검소하라.	성급함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면서 주위의 자문이나 조언을 귀담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가능한 한 타인의 일에는 개입을 않는 편이 좋으며 자신의 건강에 많은 신경을 기울여 안정을 도모하기 바란다. 시기를 기다리며 심신을 안정시켜라.	만사가 흥통하는 운이나 큰일은 할 수가 없다. 다소 소극적이거나 할 만큼 저자세로 일에 임하면 크게 길할 것이다. 모든 일에 도를 지나치면 도리어 재해를 입기 쉬운 때이므로 특히 대인관계 등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겠다.	심사숙고해서 경제활동을 삼가야 할 시기이다. 결술하 나아가면 산에 산이 중첩하는 난관에 부딪힌다. 정치해야 할 때는 정치해야 한다. 태연하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차분히 노력해서 현재의 지위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의욕이 충만한 가운데 자신의 일이나 문제 등이 현실로 돌입되는 시기이니 현 상황에서 확장이나 변화를 시도하기 위하여 과감한 행동이 따라야 하며 너무 주위를 의식할 필요는 없다. 용기를 가져라. 최후까지 노력하면 달성된다.
 말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양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원숭이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닭 행운색: 검정 길방: 북	 개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돼지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항상 자신의 주장보다는 주위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혜롭게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신경이 많이 쓰이는 때이다. 의욕이 저하되는 모습을 타인에게 들킬 수 있으니 각기의 정신이 필요할 때다. 무리하면 스스로 상처이다.	의욕이 너무 앞서거나 물질적인 면을 강하게 추구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태에서 안정을 찾으도록 하라. 한편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독자적인 행동보다는 인간적 유대관계에 마음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 신변에 가까운 일은 성취된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에는 보이지 않는 장애가 많고 고심하게 되며 주위로부터 구설이 뒤따르기도 하니 특히 근신하여야 한다. 매사에 많은 예로가 따르니 성급하게 나서지 말고 돌파구를 찾도록 노력하라. 정재를 봐서 거래에 투자하라.	별로 진척이 없는 시기이므로 무엇을 이루기에는 시간적인 여유를 필요로 한다. 보다 긍정적인 진취적으로 생각하여 현 위치에서 좀 더 높은 자리로 도약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곧이 위기는 극복 되겠다. 소극적으로 행동하라.	금전적인 이득과 함께 이성이나 귀인의 도움이 따른다. 자신의 명예에 관한 행동이나 금전관계도 원활하나 과감한 행동이나 처세는 심사숙고 해야 한다. 서류상의 문제는 정확한 확인 및 보관이 필요하다. 오늘 귀인은 토끼띠이다.	자칫 인간관계에서의 트러블로 인해 곤고한 지경에 놓이게 되며 그로인한 심리적인 갈등과 말갈로 의욕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한동안의 안정으로 다소 여유를 얻으며 생각지 않은 만남이 연출된다. 지출이 많을 때이다. 자제하라.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636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업총괄 김상수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호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릉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월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